

# 날아든 풀씨의 반세기 서울문화 만보(漫步)\*

김형국\*\*

## 〈目 次〉

- |                         |                        |
|-------------------------|------------------------|
| I. 서울을 제2고향이라 하면 어폐가 있다 | IV. 장식용 문화에서 성장엔진으로    |
| II. 산업주의가 남긴 문화유산과 그 성찰 | V. 외형의 아름다움 대 내면의 아름다움 |
| III. 차도주의에서 인도주의로       | VI.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새 도전  |

### I. 서울을 제2고향이라 하면 어폐가 있다

4·19가 나던 1960년에 내 서울살이가 시작되었다. 정들면 고향이라 했는데, 미운 정 고운정 둘기가 약 반세기를 헤아리는 세월에서 서울을 겨우 ‘제2고향’이라 부르면, 본의 아니게 이 도시와 거리를 두는 어폐(語弊)가 될 것이다.

그 사이 서울의 외형 변모만 따지면 우선 인구가 5배로 불었다. 그리고 상경 기차 길에서 영등포 다음 한강을 건너야 서울인줄 알았던 도시구역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땅 이름을 제대로 작명하지 않은 채 “영등포 동쪽”이라며 ‘영동(永東)’이라 어정쩡하게 불렀던, 지금의 ‘강남(江南)’ 땅까지 껴안은 거대 시가지가 되었다.

도시외관이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모”하는 사이에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문화도 혁명적으로 변모한 것은 당연했다. 내가 서울문화에 포섭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이에 희비(喜怒哀樂)교차의 곡절이 많았다.

### II. 산업주의가 남긴 문화유산과 그 성찰

압축 고도성장의 주역은 서구 산업혁명의 전철을 밟으려 했던 1960년대 초, 발전도상국 한국

\* 이 글은 2007년 3월 27일, 서울시 문화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 ‘서울문화포럼’의 자체 토론회에서 발제한 것을 텍스트로 옮긴 것이다.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의 산업화정책이었다. 성공의 여파로 산업주의의 각종 발상법이 우리사회에 전방위로 확산한다.

대량생산과 대형건설의 미덕이 우리 사회의 성취를 재는 잣대가 된다. 제철공장의 일관 작업이 대량생산의 성소(聖所)로 떠받들어져 산업관광의 필수 코스가 되었고, 밤을 지세며 박차를 가하던 고속도로 공사가 대형건설의 전시장이 되었다.

한 시대를 압도했기에 산업주의는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자 행동방식이던, 바로 우리 문화였다. 세계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교회의 탄생도 그 시절이었다.

대량·대형주의는 ‘빨리빨리’의 속도문화이기도 했다. 덕분에 나라경제가 초고속 압축성장을 이룩하지만 부작용이 뒤 따른 것은 필지의 일이었다. 1990년대 중반, 삼풍아파트·성수대교 붕괴 같은 참사는 차치하고라도 한국사람의 인성이 일반적으로 거칠어졌고, 부패를 포함해서 법질서에 자못 둔감하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sup>1)</sup>

산업주의의 도시적 표출은 아파트 주거의 도입과 그 폭발적 확산이었다. 마침내 한강을 따라 즐비하게 들어선 아파트군은 서울의 대표적 경관이 되었다.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이 땅을 밟는 외국인에게 강요하다시피 했던 “한국의 첫 인상”에 대한 물음은 이전에 “푸른 하늘”이던 반응이 어느새 숲처럼 들어선 아파트가 주는 도시 분위기 중심으로 옮겨간다. 무척 의아해도 초행길 외국 손님이 그걸 내색할 수 없는 법. 에둘러 말한 것이 “사회주의적 양식의 자본주의적 생산”이라 했다. ‘주의’란 말의 중복 수사(修辭)가 심오한 경지가 있지 싶은 인상을 주지만, 알고 보니 “단조롭기 짝이 없는 몰(沒)취향 문화”란 뜻이었다. 사회주의적 양식이란 획일적이란 뜻이고, 자본주의적 생산이란 꼭 같은 것을 무턱대고 많이 지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대량생산된 아파트가 서울사람 주거양식의 절반을 진작 훌쩍 넘었다. 서울생활권에서 신개발, 재개발되는 땅은 거의 어김없이 아파트단지가 되었고, 기성 아파트들은 높다란 사무용 건물을 따라잡을 양으로 고층화되고 있다. 지기(地氣)를 받을 수 없는 집이란 약점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주택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온 아파트는 본디 집이 품고 있던 보금자리란 인간적 가치는 전적으로 외면된 채 ‘유행상품’이자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만 높이 받들어진다.

아파트 같은 물리적 구조물은 관성이 높아 꽤 오래도록 서울의 경관을 지배할 것이다. 지배적 현상은 여러모로 사회적 파장을 낳기 마련. 무엇보다 자연에 대한 갈증으로 말미암아 외향성 곧 집 바깥나들이가 가속적으로 늘어난다. 시민공원을 찾는 발길이 분주하고, 경승지를 찾는 교통량이 주말의 도시 안팎 길을 메운다. 생활문화의 필수로 자리 잡은 놀이문화의 수요가 급팽창한 것이다.

유지·관리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고층아파트군은 두고두고 도시관리에 부담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서울아파트문화를 깊이 연구한 프랑스 문화지리학자의 소견은 재개발사업이 20~30년 주

1) Michael Breen, *The Koreans: Who They are, What They Want, Where Their Future Lies*, New York: Thomas Dunne Books, 1998.

기로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시가지는 앞으로 한시도 ‘조용할’ 틈이 없이 “서울은 공사 중”이 될 것이라 했다.<sup>2)</sup>

같은 대량생산문화의 흔적으로 상용 건물을 뒤덮은 대형 간판은 도시난개발의 대표적 얼굴이다. 가게의 정체를 돋보이려고 일대가 경쟁적으로 간판을 크게 만드는데, 결과는 모두가 목청을 높이면 누구 소리도 들리지 않음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모든 가게의 자멸이자 지역의 황폐(荒廢)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의 시정에 공권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도시정책의 정석(定石)이 된지 오래다.

다행히도 대형 간판의 난무는 차츰 개선의 기미를 보인다. 무엇보다 요란스럽게 보이는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팔을 걷어붙였고, 여기에 언론도 발 벗고 나섰다.

드디어 그 시범사업으로 2001년 봄, 건대입구역 서쪽 노유동의 이른바 로데오 거리의 간판정화사업이 착수된다. “간판 하나 바꾸어 달아도 거리가 달라 보인다.”는 슬로건을 내건 서울시의 뜻에 지역주민과 입주상인들이 힘을 합친다. 의도했던 성과가 가시화되자 버스정류장, 휴지통, 안내표지판 등의 표준디자인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2006. 7. 19)를 만들어 더욱 그 시범실시지역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표준디자인이라 하지만 거기에 변용이 가능하기에 이를 일러 “질서 있는 자유”라 할 것이다.

### III. 차도주의에서 인도주의로

1960년대 초부터 국민의지가 절대가난을 벗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도정에서 특히 수도 서울은 거의 오로지 경제성장의 장소적 견인차로 간주된다. 능률성 고조라는 절체절명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 시가지 도처에 도로 확장과 개설이 펼쳐진다. 남산터널 개통, 청계천 복개, 한강 다리의 연속적 건설, 강변도로 신설은 바야흐로 도래하는 자동차시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도시는 선(線)이다.”는 믿음을 강행하는 사이에, 건널목은 공중에 매달린 육교 또는 땅 밑을 파고든 지하통로로 몰려났으며, 보도는 차도 확장에 필요하다면 가차 없이 잘려나간다. “차도(車道)주의가 인도(人道)주의를 압도하고 말았다.”는 한 식자의 냉소가 그래서 생겨났다.

차도주의 득세의 한편으로 시가지는 도처에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한다며 대형 블록 위주의 신개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 이 여파로 지형에 순응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던 골목이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만다. 길 특히 골목은 원래 오고감에 못지않게 머물음의 장소였다. 그런 골목의 도태로 말미암아 땅에 대한 주인의식은 사람이 땅을 걷는 사이에 이웃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생겨난다는 평범한 진리가 설자리를 잃고 만다. 서울이 주마간산의 장소가 되고 말아 애향심을 기대할 수 있는, 한가롭게 슬슬 걷는 만보漫步문화는 ‘멸종문화’가 되다시피 했다.

2) 발레리 줄레조, 길혜연 옮김, 『아파트공화국』, 후마니타스, 2007.

나라경제의 고도 압축성장이 가시화되자 서울의 생활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경제가 전부가 아니다.”는 인식이 퍼져나간 것이다. 이 인식과 같은 맥락에서 그 사이, 시민들이 익히 목도한 바로, 서울시정市政은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부심한다. 대학로, 시청광장, 대소 시민공원 등의 조성은 함께 살아가는 서울사람 됨을 실감하는데 좋은 장치가 되어준다.

그 폭발적 실감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주최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였다. 도심에 모여 대형스크린을 바라보면서 펼친 거리응원은 바깥으로는 월드컵 즐기기의 세계적 공준(公準)이 되었고, 안으로는 서울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집시킨 유례없는 사건이었다. 부귀를 좇아 몰려들었기에 고향은 여전히 서울 바깥이라 여긴 채 일자리, 잠자리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별달리 귀속의식을 느끼지 못하던 서울사람이 서울시민으로 태어나던 순간이었다.

확장된 일련의 녹지공간은 서울 땅에도 자연이 살아 숨쉬는 틈새의 마련이 가능성을 입증해 주었다. 하지만 시행착오도 있었으니, 월드컵을 기념한다는 성산대교 인근의 2백 미터 높이 분수가 바로 그랬다. 아무리 높다랗게 물줄기를 뿜어 올린다 해도 분수관 기술적으로 전혀 참신하지 않다. 게다가 전기과(過)소비의 반환경물이란 질책을 면할 수 없다.

바라보는 물줄기보다 인도주의 복원을 위해 손도 적실 수 있는 친수성(親水性) 확보가 지금 서울시정의 환경정책이 더욱 풀어야 할 과제다. 양안(兩岸)에다 준(準)도시고속도로를 만든 탓에 시민들의 한강 접근을 어렵게 만든 역사가 오래인데, 이 숙제를 풀 때가 된 것이다. 이 과제는 문화정책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사람을 착하게 만듦이 문화정책의 취지인데, 그런 만듦의 대상에는 자연의 생기 확장이 앞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고가도로를 만든다고 콘크리트 덮개를 씌웠던 청계천도 거의 자연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쁨을 만끽했기에 오늘의 서울시민은 이 숙제도 능히 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IV. 장식용 문화에서 성장엔진으로

문화라 하면 고급문화로만 따지던 편협한 안목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즈음 서울에서 그런 문화를 처음 목격한 것은 5·16 혁명 뒤에 어느 날 갑자기 남대문로 중앙 분리 녹지대에 들어선 인물 조각군(群)이었다. 급조도 급조이지만, 청동이 아닌 석고로 만든 영웅상에서 나라나 도시의 가난이 뚝뚝 묻어났다. 비를 뒤집어쓰자 어느새 얼룩이 가득한 흉물이 되고 말아 얼마 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나라살림을 챙기기 시작한 군사혁명세력은 입에 풀칠하기가 화급하던 절대가난의 상황에서 문화 타령은 “벌 받을 짓”이라 여겼다. 경제가 성장한 다음이나 누릴 일이라 여긴 채 개발역점 사업으로 공업단지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그걸 장식하는 꽃꽂이 정도로 치부했다.

나라의 경제성장이 탄력을 받고나자 다시 문화타령이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다. 정부는 마지못해 ‘제2경제’라 이름 붙인다.

이런 전례에 견줄 때 1988년의 서울올림픽은 수도 서울을 도시미관적으로 살피고 실행하는 전환기가 된다. 도시미관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달동네를 대대적으로 재개발하는가 하면, 한강을 환경문화적으로 정비한다.

도심지 중심으로 이른바 ‘1%법’을 적용시켜 대형건물에다 환경미화를 의무화시킨 덕분에 주요 가로주변에는 공공조각이 심심치 않게 들어선다. 규제성 미화작업은 곧잘 선정과정이 부패로 얼룩진 탓에 눈가림성 환경조각의 양산을 낳는다. 하지만 “닭이 많으면 학도 몇 마리쯤 깃들기 마련”인지 한국일보 건물 앞에 세워진 펜촉 확대조각, 강남 포스코 앞의 아마벨(Amabel) 등 수작(秀作)도 만난다.

펜촉 확대조각은 빨래집게 등을 확대해서 세계적 각광을 받았던 올덴버그(Claes Oldenberg, 1929~)를 배웠지 싶은 작품이다. 필봉(筆鋒)을 상징하는 펜촉에서 언론의 본디 사명인 파사현정(破邪顯正)에 정진하겠다는 언론인의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아마벨은 발주처가 스스로 세계적 기업의 위상에 어울리는 것이라 확신하며 추진했던 작품이다. 그런데 조각을 들여놓자마자 보통시민의 눈총을 받는다. 길거리 조각이라면 여인이 비둘기를 날리는 형상의 평화상,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자상(母子像)에만 익숙하던 안목에서 자동차인지 비행기인지를 폐(廢)처리한 것처럼 보이는 ‘쇠뭉치’가 도무지 못 마땅했다.

아름다움의 조형만이 미술이 아니라 시대적 의미의 형상도 현대미술임을 말해주는 아마벨은 우리가 줄곧 무언가 만들어 오기만 했던 조성주의에 대비해서, 만드는 것만큼이나 버리고 파괴하고 있는 해체주의도 현대문명의 상징임을 말하려 함이었을 것이다. 여기엔 “한사람 천재의 눈은 만인(萬人)의 눈을 대신한다.”고<sup>3)</sup> 믿는 작가 스텔라(Frank Stella, 1936~)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촉발하려 했지 싶다.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시민들의 계속된 눈총에 밀려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작가 반대로 무산된다. 하릴없이 아마벨 주변에 나무를 심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일부 가리는 시늉으로 결말났다. 예술엘리트주의와 손쉬운 조형을 기대하는 포퓰리즘의 갈등이었다.

안목의 갈등은 최근에 국내작가 선호를 주장하는 민족주의와 예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세계주의의 상충으로도 비화했다. 복원된 청계천 물줄기 들머리에 세워진 올덴버그의 <샘>이 그런 갈등에 휘말리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갈등의 틈새에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 튼튼해지듯이, 문화예술에 대한 서울시청의 자체 안목도 진경을 보여준다. 2005년, 광복 60주년 금강경축(金剛慶祝)을 맞아 서울시청 청사를 온통 뒤덮는 크리스토프(Javacheff Christo, 1935~)류의 설치미술이 인상적이었던 것. 대한민국의 정체성 현창에 더욱 힘써야 할 축일인데도 북한교섭단의 서울 방문을 의식해서 정체가 애매한 한반도 기로 경축 분위기를 호도하려던 중앙정부의 엉거주춤한 행보에 대한 수도 서울다운 정공법이었

3) 김종영, 『초월과 창조를 향하여』, 열화당, 2005.

다.

아무튼 2천 년대를 고비로 문화부문의 입지는 환골탈태하는 경지를 맞는다. 문화가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꽃에 머물지 않고 날로 격화되는 세계경제전쟁시대의 침병으로 각광을 받는다. 문화의 사회적 입지로 보아 혁명적 지각변동이었다. 스페인의 낙후지역 빌바오에 현대미술관이 들어서자 국내외 관광객이 홍수처럼 몰려들어 개관 첫해에 3억불 건축비의 본전을 뽑았다는 전대미문의 사태나, 영화 한편이 자동차 수백만 대 수출로 버는 벌이보다 낫다는 외국사례에 고무된 나머지 시속(時俗)에 정통한 식자들이 입만 열면 ‘문화산업’의 성장추동력을 강조하고 나선다.

이 추세대로 우리 문화산업 가운데 이를테면 만화의 세계진출이 팔목상대할만하다. 현실의 희화(戲畵)라 해서 만화는 구세대들이 아이들의 손에서 멀쳐 놓기를 고대하던 ‘하찮은 짓거리’였다. 세상이 바뀌어 사람 상상력이 광대무변으로 구현되는 매체라 떠받들어지면서 만화는 이제 ‘에니메이션’이란 영어를 탈을 쓰고 득세하고 있다. 실제로 ‘manga 망가(漫畵)’라는 독자 브랜드로 이름난 일본만화책이 인기인 뉴욕의 독서시장에 우리도 ‘manhwa 만화’란 이름으로 당당히 한몫 끼어들었다.

문화산업의 갑작스런 각광에 어찌 잡음과 비용이 없을 것인가. 우리가 세계적 IT 강국이 된 것은 자타공인이지만, 그 이용이 선(善)순환 못지않게 악(惡)순환하는 기미가 “두더지 머리 내밀기” 놀이처럼 도처에서 나타난다. 내재화해야 좋을 욕구불만이 외부로 폭발하여 이웃사촌이란 이전의 미덕을 무색케 하는 ‘악플’이 난무한다. 중앙정부의 육성대상인 게임산업은 ‘바다이야기’로 번져 가난한 사람들을 사행심 중독증으로 몰고 있다. 이 지경에서 인간성 교양을 책임진다는 정부의 정당한 명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난국을 최근 우리는 목격했다.

## V. 외형의 아름다움 대 내면의 아름다움

한 사회에서 환경주의가 실현되려면 국민소득이 5천불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다. 우리의 환경의식 전개도 그 경험 궤적과 다르지 않았다.

환경주의와는 달리, 문화주의의 실현은 반드시 국민소득 수준과 연계되지 않는다. “한 대(代)가 돈을 벌면, 다음 대는 권력을, 그 다음 대는 예술에 몰두한다.”는 독일 소설가 만(Thomas Mann)의 소견은 문화의 개화(開花)가 자못 경제결정적임을 말해주는 입장이라면, 애국자 김구는 국력에 관계없이 삶의 진실이 담긴 곳이면 문화가 넉넉한 국격(國格)을 누릴 수 있다고 본 입장이었다.

나라가 망했음을 가장 애통해 하던 백범이 극한상황 속의 망명지에서도 광복된 조국의 장래를 ‘문화대국’에서 찾으려 했다. 문화의 경제결정론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다. 독립운동가가 소원 하던 문화의 아름다움이 외형의 겉치레가 아니고 삶의 착한 내면 곧 삶의 진실이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삶의 내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지인지는 공자에게 묻는 것이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다. 제자가 묻는다. “가난하고도 아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貧而無諂富而無驕 何如)?” 공자는 답한다. “훌륭하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즐길樂 수’ 있고 부자이고도 예(禮)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못하다(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제자의 관점은 “하지 않음”이란 소극 가치에 착안한데 반해, 공자의 대답은 “즐기고 좋아하는” 적극 가치에 착안한다. 예악(禮樂)의 덕목에 대한 공자의 강조는 “앞으로 나아간” 선진(先進)사회란 일인당 국민소득 얼마라는 기준이 아니라 착하게 나아가는 사회 곧 ‘선진(善進)사회’임을 강조하는 우리 식자 한 사람의 시각으로<sup>4)</sup> 이어진다.

나라의 경제성장이 탄력을 받을 동안, 서울시민을 포함해서 한국사람은 정말 아등바등 살았다. 세계현대사에서 가장 기록적인 성장을 일군 덕분에 거의 모두가 영양결핍에서 벗어나 영양과잉을 걱정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과연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생긴다,” 곧 경제형편이 좋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진다는 맹자의 말이 우리 사회에도 유효하단 말인가.

현실은 우리 모두가 ‘비교의 고민’에 빠져 있다. “배가 고프는 것은 참아도, 배가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함이 오늘의 국민정서다. 비교의 고민은 사람의 타고난 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우는 비교의 준거인 상대방만 안중에 있을 뿐, 조밀한 대도시에서 불가피하게 더불어 살아야 할 피부에 닿는 이웃에 대해서는 무뢰(無賴)에 가까운 무감각이다.

작년에 최근 세계적 구독률을 자랑하는 교양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세계 36대 도시 시민들의 친절도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뉴욕이 1위였다(『Naver 뉴스』, 2006년 6월 22일). 재미있는 조사항목 하나는 앞뒤로 열리는 스프링 도어 문을 들어설 때 뒤따를지 모를 사람들에게 문짝이 반동(反動)으로 튕겨 나갈까봐 항상 주의를 기우려 잠깐 문을 잡아주는 생활교양을 시민들이 체질화하고 있는가를 따져본 것.

조사대상에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조사하지 않아도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이 틀림없다. 내가 봉직하는 이른바 일류대학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무심함을 보면 능히 짐작이 간다.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는 전혀 안중에 없이 스프링 문을 튕기며 들어서기 일쑤다.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는 지하철 같은 공중장소에서 고성방가 수준의 휴대전화기 이용은 이미 당국도 염려한 바라 진작부터 각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별무성과임은 주한 외국인이 우리의 유력 신문에 휴대전화기 사용이 금지된 지하철 전용칸의 신설 제안이 대신 잘 말해준다.

4) 김진현, “한국의 비전, 한국의 능력,” 김진현·김형국·전상인,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나남, 2004, pp.19-46.

## VI.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새 도전

우리처럼 자발성과 선량성이 기조인 시민정신에 기초하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꼭 제한되어 있다. 특히 문화생활은 자연발생적 사회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선택이자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끼일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좁다.

나라가 할 수 있는 바가 꼭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교화(敎化)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은 막중하다. 문화권도 국민의 기본권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조직의 문화적 발상법과 그 정책방식에 대해 궁금증과 함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가운데 특히 서울시정의 입지는 한마디로 복잡다단하다. 세계화추세에 대응해서 세계도시로 우뚝 선 서울이 국가경쟁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함은 시대의 요구이지만, 이 요구에 서울이 성공적으로 운신한다 해도 지방의 시생성 시선을 외면할 수 없다. 서울의 성공이 지방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라는데, 기대는 항상 실현에 못 미쳐 질시와 견제가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서 최근 서울시가 이를테면 강원도가 일심(一心)으로 매달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파트너로 동참하고 나선 것은 시의 적절한 결정이었다.

서울이 지방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은 점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면, 서울 땅 안의 사회계층별 문화향수의 분배효과 증대는 해도 해도 미흡하기만 한 해묵은 현안이다.

문화향수가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장차의 서울시 문화정책이 “판을 펼칠 수 있는” 여건 내지 인프라의 설치에 역점을 두는 것은 예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상되는 향수의 자연적 결과가 가진 사람 우대 쪽으로 치우치기 일쑤임이 문제 상황이다. 서울시로서는 인프라의 설치와 그 발전적 전제가 세계화시대의 첨병인 정보엘리트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을 겨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정보엘리트는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소득 상위 백분의 일, 심지어 천분의 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근거지를 옮겨갈 수 있는, 터전과 무관한 ‘몰(沒)장소적 권력층(placeless power)’이기에 우리는, 뉴욕이 런던을 경쟁상대로 삼아 도시정책을 펴고 있듯이, 최소한 동경, 상해, 홍콩, 싱가포르를 경쟁상대로 여길 수밖에 없다면 정보엘리트의 존치와 유치를 겨냥한 문화정책은 필수적이다.

여기서 문화격차(cultural divide)의 골이 깊어진다. 세계수준의 문화 인프라는 서민층인 ‘무권력 토착층(powerless place)’에겐 “소, 닭 보듯”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안이 없지는 않다. 문화향수의 교육적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예술교육은 최상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석”이라 했던 독일 문호 괴테의 명언이 진실일진데, 정책 개입으로 최상의 문화예술을 무권력층 또는 저민층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해주는 일이다.

작금에 서울시가 구청 단위에서 문예회관의 설치를 권장하고 그 운영에도 지원을 늘리고 있



음은 펍 고무적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향이 구청 문예회관이나 문화소외지역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음은 고마운 일이다.

이 연장으로 서울문화포럼 같은 친정부조직(NGO: near/next government organization)은 위로는 최상의 인프라 설치를 부추기는 거버넌스(governance 協治)적 참여에 앞장 설 수 있을 것이고, 아래로는 문화소외층에 대한 접근성의 제고를 부추기는 일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선도 내지 일조하는 일은 주로 말과 글을 통해서인데, 말발과 글발이 제대로 서자면 무엇보다 공의(公義)를 절대 우선하는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